

## 수집 · 선별업체 지원 확대해야...

재활용이 지구 환경 보전과 자원의 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은 두말 할 필요 없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.

그래서 각국마다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앞 다퉈서 개발하고 이의 생활화에 나서고 있다.

우리나라도 생산자책임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용의 체계화를 서두르고 있는 시점이다.

당국은 이 제도가 차츰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재활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각종 제도의 개선과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수집 · 선별에 대한 지원대책이 상대적으로 열약하다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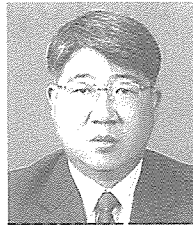
생산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실적에 따라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겠다는 근본취지에는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. 그러나 재활용의 첨병은 수집과 선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.

요즘 국민들의 의식이 날로 향상되면서 분리수거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고 아파트 단지마다 재활용품의 별도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, 아직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매립 · 소각되거나 버려지는 재활용품이 얼마나 많은가.

이를 재활용될 수 있도록 구석구석 찾아내고 자원화하는 사람들이 수집 · 선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. 그러나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행정력이 떨어져 정책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재생품을 생산하는 비교적 체계화된 처리업체에 그 혜택을 유린당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고 보여진다.

당국은 이러한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적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여야 함은 당연하겠거니와 한번 더 나아가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.

1백만을 헤아리는 수집 · 선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



이종석

- (주)삼우그린 대표이사
- (사)한국자원재활용협회 경북회장

의 혜택이 늘어날 때, 재활용율은 분명히 획기적인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.

여기서 필자는 다음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다.

첫째, 수집 · 선별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근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.

앞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수집 · 선별은 재활용 산업의 최일선이다. 처리업체에 편중된 현재의 재활용 정책의 초점을 수집 · 선별업체 위주로 바뀌어야 하며, 품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처리업체의 1/3수준에 불과한 지금의 지원금도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.

둘째,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.

수집 · 선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정력이 전무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쉽고 간편하게 하여야만 그나마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.

현재 조합이나 협회를 통해서 약간의 수혜를 입고 있는 업체들도 있지만 이를 대행하는 조합, 협회들의 횡포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.

이 두 가지 점이 전향적으로 개선될 때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집 · 선별업체들의 경영이 다소 나아질 것이며, 그것이 곧 재활용 산업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.

이제라도 정책 당국자들은 수집 · 선별업체가 재활용 산업의 근간이자 첨병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이들의 육성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입안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.